



한라산이 솟아오르는 모습의 용두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제주

제주도 소개

한국최대의 섬인 제주도는 면적 1,845km²에 인구 약 54만 명이 살고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120만년~70만년 전 사이에 용암이 분출하면서 바다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30만년~10만년 전에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용암류에 의해 한라산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약 2만5천년 전에 마지막 화산의 대폭발로 지금의 백록담이 완성되었다. 제주도는 해발 1950m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섬 전체가 흑갈색의 화산암과 화산회토로 덮여있다.

또한 섬 전체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태고의 모습을 간직한 채 푸른 바다 위에 떠있어 제주를 찾는 외국관광객은 북태평양의 파라다이스란 찬사를 아끼지 않는 섬이다.

이렇듯 제주는 한라산 백록담주변의 세계적인 희귀식물에서부터 해변가의 기암괴석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는 섬 전체가 그대로 때묻지 않은 관광의 보고이기도 하다.

공중화장실 현황 및 사업추진내역

년 400만 명을 웃도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제주도는 관광지의 청결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광지의 화장실문화개선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

다. 우선적으로 올바른 화장실 이용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광지화장실문화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화장실문화개선에 앞서서고 있으며 99년 4개소의 화장실정비를 시작으로 2000년 49개소, 2001년 25개소의 정비 등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도내 관광지 화장실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여름철 관광객에 대비하여 해수욕장 및 제주국제공항 화장실의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도내 화장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화장실문화개선사업의 특징

도 외의 선진화장실 우수사례의 견학 및 조사를 통하여 신축 및 개·보수 시 선진화장실의 모델에 지역특성을 살린 친 환경적 시설을 결합하여 제주도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화장실시설 현대화와 청결함으로 국제적인 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에 화장실 평가제를 도입하여 도내 우수화장실을 대상으로 최우수화장실 1개소, 우수화장실 4개소를 심사위원단의 실사를 통해 선정하여 시상금 및 표창패를 수여하고 명패를 제작하여 부착함으로써 도내 화장실 관리기관

Jeju



▲ 왼쪽이 펼쳐있는 한라산 전경

▲ 2001년 12월 완공예정인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 제주도에 특색적인 화장실들전시

꿈의 섬 「이어도」

예로부터 우리 제주인들은 '이어도'라는 이상향을 꿈꾸어 왔습니다. 비록 이어도는 세계지도상에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금년부터 추진되는 「국제 자유도시 개발」이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동북아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의 이어도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 동북아 최고의 관광 휴양지로 발돋움 하는 제주도가 세계인을 기다립니다.

및 업체의 청결·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다 아름다운 화장실문화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주시, 서귀포시 등을 주체로 대형빌딩, 상가 등 다중이용장소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제주를 찾는 사람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화장지 등 위생용품, 정화조 청소비 등을 지원하고 서귀포시는 안내표지판의 부착, 화장실정소(3회/일), 수도요금의 감면(30%)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많은 참여를 유도하여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합하여 약 70여 개에 달하는 개방화장실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문화가 숨쉬는 제주도

제주도는 1만8천의 신(神)들이 사는 신의 나라라고 한다. 왜 하필이면 1만8천일까. 그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토록 많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선한 신이 있는가 하면 악한 신도 있고, 보살펴 주는 신이 있는가 하면 심술만 부리는 신도 있다. 산에도 바다에도 들관에도 있었고 마을마다 자리잡고 사는 신들도 있었다. 집안 곳곳, 고광(창고)이며 정지(부엌), 또는 장

광뒤(장독대), 통시(화장실)에 까지 신들이 있었다. 제주사람들의 신화적인 상상력이 1만8천 신들의 섬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제주에는 1년 내내 문화축제가 많이 열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 유채꽃 큰잔치.

철쭉제, 제주 악세꽃 축제, 한라산 눈꽃 축제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이 열린다.

하지만 올해는 1998년 처음 시작되어 3년마다 열리는 「제2회 제주 세계 섬 문화축제」가 열렸다.

섬에서 세계로!(From Islands to the World!)

라는 기본 주제아래 세계의 30개 섬사람들이 참여하는 세계 섬 문화축제는 전혜의 레저 휴양지에서 제주의 아름다움과 관광상품을 소개하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되고, 축제에 참가하는 해외 섬들의 전통문화와 민속공연 등도 볼 수 있었다.

국가적인 큰 행사인 2002년 6월에 펼쳐질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하여 서귀포시 법환동에 제주도의 자연과 전통문화를 조형화 하여 건설중인 42,200㎡ 규모의 축구전용 경기장이 200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마지막 작업에 단전을 가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점진적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진**

